

증권

증권의 한계를 그은 건 어쩌면 나일지도?

증권. 장영임

yijang123@sks.co.kr / 3773-8424

증권: 증권의 한계를 그은 건 어쩌면 나일지도?

증권. 장영임 / yijang123@sks.co.kr / 3773-8424

**KOSPI 지수 신고가 경신,
일평균 거래대금 최고치 경신
증권업에는 너무 좋았던 1분기**

1. Summary

지난 1 분기 유례없는 증시 상승에 따라 KOSPI 6,000pt 를 돌파, 일평균 거래대금은 66.6 조원을 기록하였다. 이에 1 분기 증권업종은 1)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2) 브로커리지 관련 이자손익, 3) 운용손익이 주식시장 강세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이익을 중심으로 개선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였다.

**KOSPI 지수 8,000pt 돌파
하반기에도 주식시장 강세
지속 전망**

1분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2 분기에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에 증시 변동성은 높겠지만 당사 자산전략팀 2026 년 KOSPI 밴드 6,500pt~11,000pt, 연말 타겟은 9,900pt 제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72.5 조원(KRX+NXT)을 전망하며, 유니버스 증권의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대비 58.9% 증가한 11 조원으로 전망한다. 최근 반도체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증시 상승 및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 국면에서 증권주가 소외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며, 투자 의견 OVERWEIGHT 유지한다.

**증시 호조에 따른 수혜 고려 시,
BK+WM 부문 기여도 높은
삼성증권 선호**

1) 일평균 거래대금, 신용거래용자잔고 등 브로커리지 지표 견조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81.5 조원(4 월 67.8 조원, 5 월 현재 103 조원; vs. 1분기 66.6 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예탁금 2 분기 평잔 123 조원, 신용거래용자잔고 평잔 34.7 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15.5%, 11.7% 증가하였다.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72.5 조원(KRX+NXT)을 전망하며, 브로커리지 및 자산관리 수수료수익의 ROE 기여도가 높은 삼성증권을 선호한다.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운용부문 수혜 측면에서
한국금융지주 선호**

2) 운용손익은 유가증권 평가이익, ELS, 발행어음 등으로 채권운용 부진을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1 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중금리 상승 추세에 따라 채권운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주식시장 강세로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하반기에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1 분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채권운용 부진을 유가증권 평가이익, ELS 조기상환, 발행어음, ETF LP 등 기타 운용손익으로 얼마나 상쇄시키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운용 자회사에서 유가증권 평가이익 기여도가 높고, ELS 및 발행어음 측면에서 경쟁력 높은 한국금융지주를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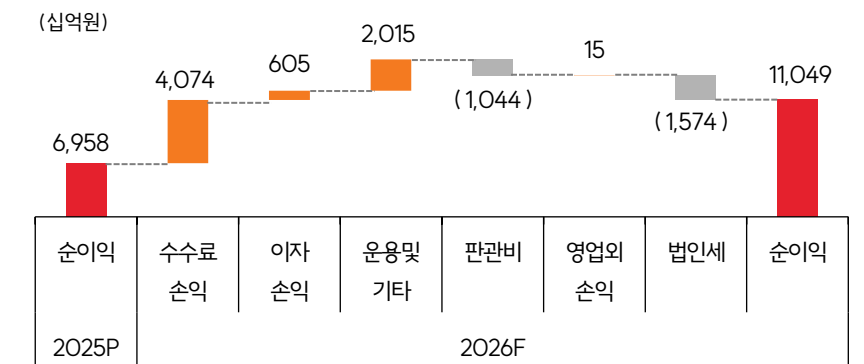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 완화 등 회전을 제고 및 거래대금 지속 확대 기대

물론, 거래대금 및 증시는 변수가 많은 영역이나, 거래대금 지속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도 예정되어 있다. 증권업 입장에서는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5월 27일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하고, KRX 거래시간 연장(프리, 애프터마켓 신설)을 9월 14일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회전율 제고 및 거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직접 거래할 뿐 아니라,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대상을 국내 ETF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진입이 용이해지며 브로커리지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op Picks :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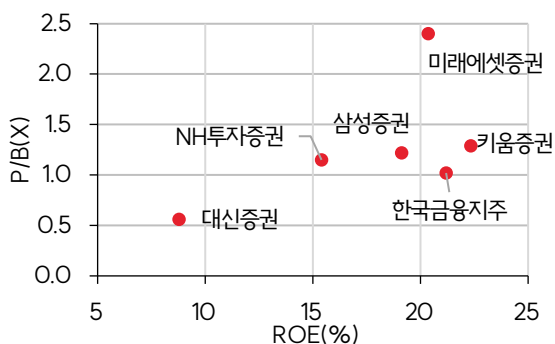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증권업종 전반적으로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브로커리지 외의 경쟁력으로 차별화된 성과를 입증하는 종목 위주로 주가 차별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리테일 경쟁력을 바탕으로 BK와 WM 측면에서 ROE 기여도가 높은 삼성증권과, 발행어음/IMA 등 운용부문에서 차별화되는 한국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유니버스 증권 2026F 연결 순이익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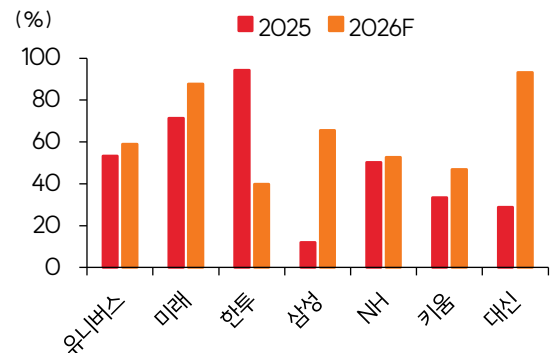
자료: 각사, SK증권

유니버스 증권 2026F ROE - P/B Matrix



자료: 각사, SK증권

유니버스 증권 지배주주순이익 증가율



자료: 각사, SK증권

2. 2026년 상반기 Review

거래대금 급증으로 연초 강세
다만, 3~5월은 주가 상승
탄력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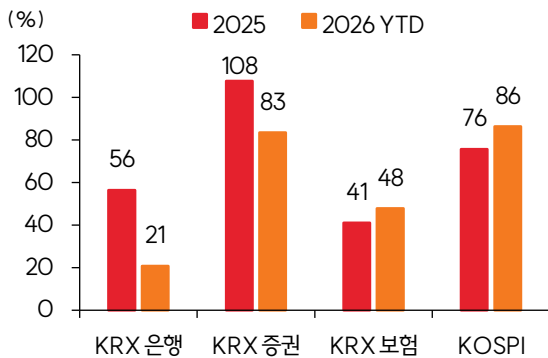
(1) 상반기 증권주 주가 Review – 뒷심 부족

KRX 증권지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 KRX 증권지수는 전년 말 대비 +83.4% 상승하였는데, KOSPI (+86.2%) 대비하여서는 소폭 언더퍼폼하였다. 상반기 주가 추이를 요약하자면, 1~2월 유례없는 증시 상승 및 거래대금 폭증으로 연초에 KOSPI 대비 강세를 시현하였으나, 3월 이후부터는 피크아웃 우려 불거지며 2분기에도 QoQ 증가세인 거래대금, 1분기 호실적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탄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이다.

1~2월에 KRX 증권지수는 +89.9% 상승하며 엄청난 급등세를 시현하며 KOSPI 대비 아웃퍼폼하였다. 이는 1) KOSPI 지수의 신고가 경신과 더불어 2) 일평균 거래대금이 60조원대로 전분기 대비 80%가량 증가한 수준을 보임에 따라 증권주 투자심리 개선 및 실적에 대한 기대감, 3)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주목을 받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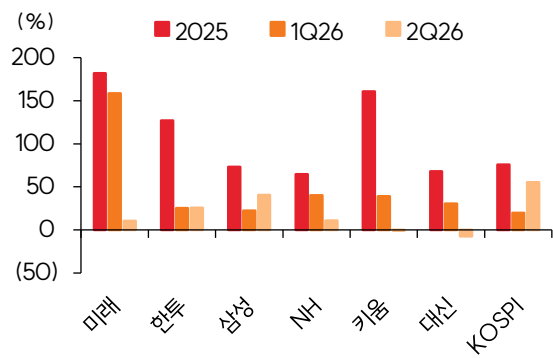
하지만, 3월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낙폭이 컸고, 4~5월에는 전반적으로 KOSPI 대비 언더퍼폼하였다. 이는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가 불거지며 투자심리가 약화되었고, 반도체주 중심의 주가 상승으로 소외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한다. 5월 삼성증권만 KOSPI 대비 +1.9%p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이는 IBKR 제휴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던 것에 기인한다.

KRX 은행, 증권, 보험 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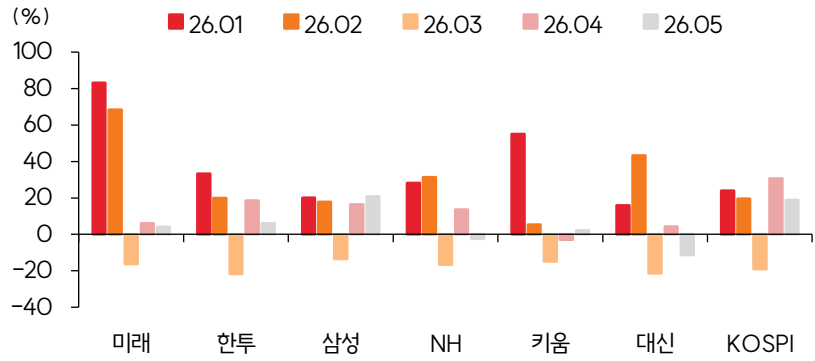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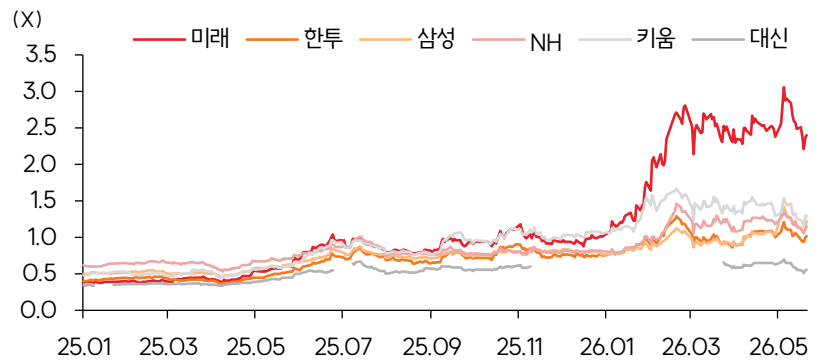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월별 주가 상승률



자료: Quantwise,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12MF P/B 추이



자료: Quantwise,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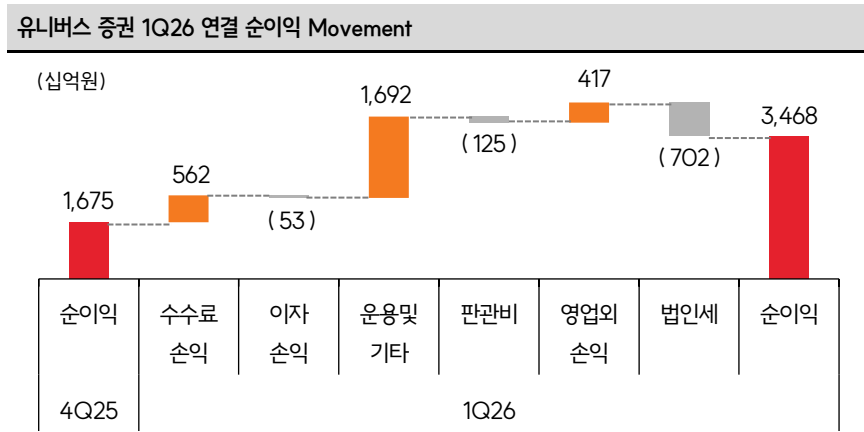
주식시장 강세를 온전히 누린
1분기 실적이라 평가

(2) 1Q26 실적 Review – 호황에 걸맞은 호실적

유니버스 증권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3조 4,639 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8.0%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하였다. 공통적으로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손익 및 브로커리지 관련 이자손익이 개선되었고, 운용손익은 채권부문 부진에도 다른 운용손익들이 상쇄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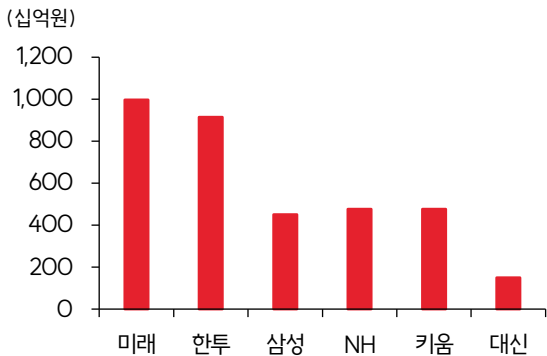
채권 부진을 상쇄하는데 기여한 운용손익은 각 사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다.

- 1) 미래에셋증권: 대규모 투자자산 평가이익, 2) 한국금융지주: ELS 조기상환 확대, 발행어음 사업 기여, 3) 삼성증권: IB 영업연계 자산 처분손익, 4) NH투자증권: 만기 도래 보유채권 처분이익, 5) 키움증권: 에쿼티 프랍 및 ETF LP 부문에서 기여하였다.
- 다만, 비용단에서는 판관비 및 법인세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세 및 법인세율 인상 효과와 기타 인건비 등이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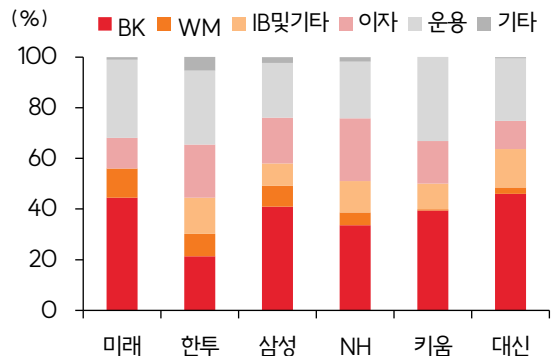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1Q26 지배주주순이익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1Q26 별도 순영업수익 구성 비중



자료: 각 사, SK 증권

3. 2026년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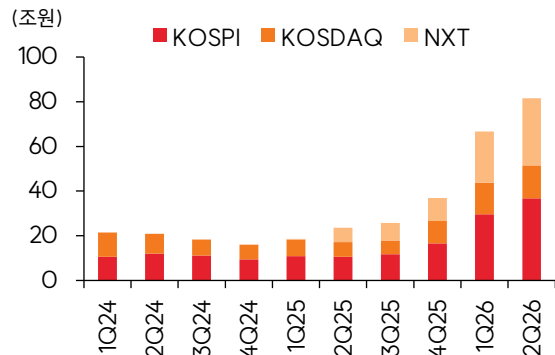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사업 부문에서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 지속

(1) 일평균 거래대금 견조, 브로커리지 성장 동력 여전히 ining 형

하반기에도 주식시장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 부문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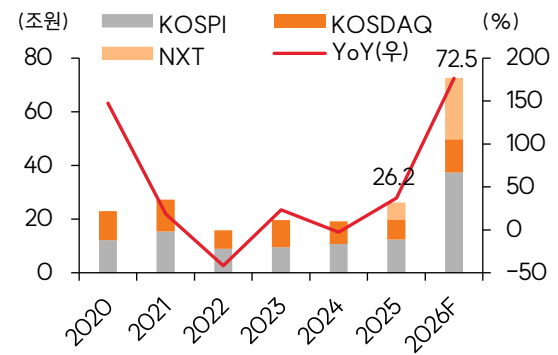
반도체주 중심으로 KOSPI 지수가 상승하여 7,000pt~8,000pt 사이를 등락하고 있으며, 5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03 조원으로 100 조원대 거래대금을 기록하고 있다. 2 분기만해도 당사의 기존 추정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현 수준을 감안하여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 추정치를 기존 54.2 조원에서 72.5 조원으로 33.8%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유니버스 증권 2026F 브로커리지 수수료손익은 7 조 1,993 억원(YoY +96.4%)으로 전망한다.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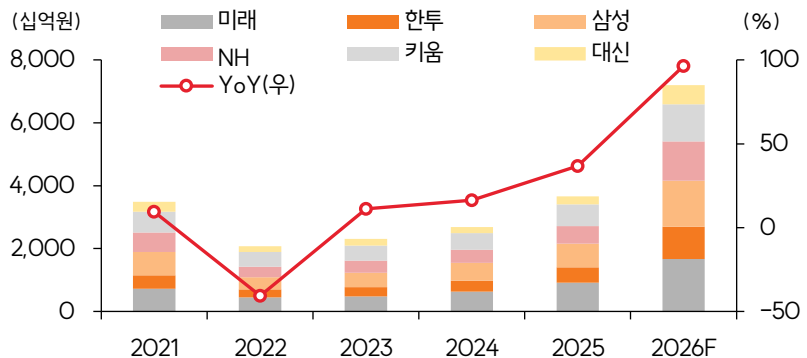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넥스트레이드, SK 증권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및 전망



자료: Quantwise, 넥스트레이드,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브로커리지 수수료손익 전망



자료: 각 사, SK 증권

(2) 목표전환형 펀드/랩어카운트 빠른 회전을 통한 WM 수수료수익 성장

1 분기 실적에서 보이듯이,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이 크게 증가한 것에 더하여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역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이는 증시 호조에 따라 목표전환형 펀드 및 랩어카운트 판매 증가 영향이다. 주식시장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거래대금 측면에서의 회전을뿐 아니라 목표전환형 상품에서 목표수익률을 단기간에 달성한 이후 청산, 재가입하는 과정이 빨라지며 WM 에서도 회전율의 개념이 눈에 띄었던 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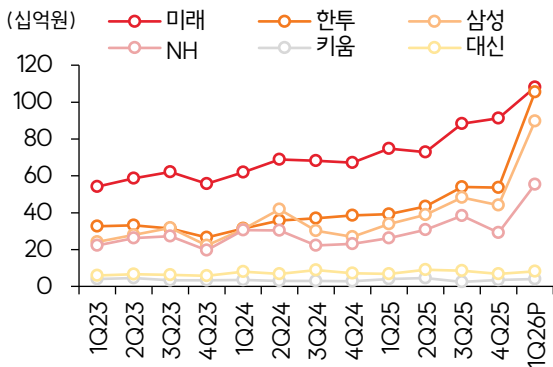
**주식시장 강세 수혜는
목표전환형 상품
판매 증가로 나타남
→ 삼성, 한투, NH 우위**

하반기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목표전환형 펀드 및 랩어카운트에서 강점이 있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 투자증권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1 분기에도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성장률이 이 세 종목에서 특히 높았다. 물론, 절대적인 자산관리 수수료수익은 퇴직연금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크나, 이번 증시 호황에 따른 수혜는 펀드 및 랩어카운트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기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 투자증권의 매력도가 더 높은 국면이라고 판단한다.

**BK+WM 기여도 높은
삼성증권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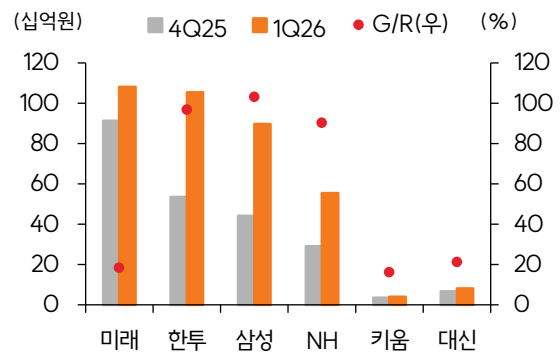
이처럼 하반기에도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 수수료수익의 ROE 기여도가 높은 종목이 매력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ROE 기여도는 삼성증권이 가장 높고, 키움, 미래, NH, 대신, 한투 순서로 나타난다. 따라서, BK 와 WM 경쟁력 측면에서 삼성증권을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유니버스 증권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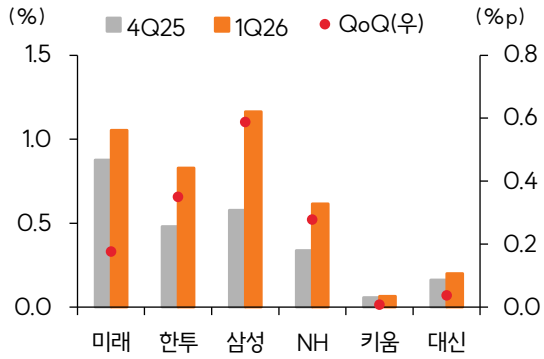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G/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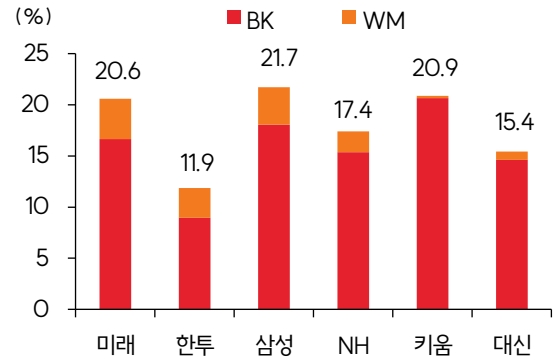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자산관리 수수료수익 ROE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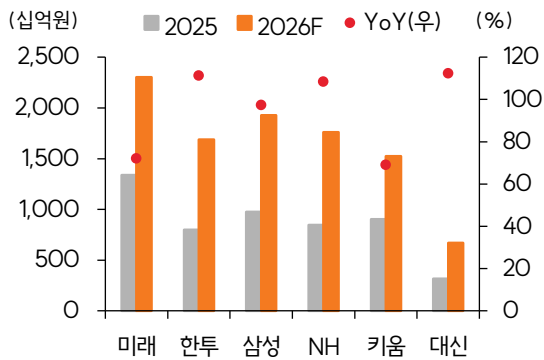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2026F BK+WM 수수료수익 ROE 기여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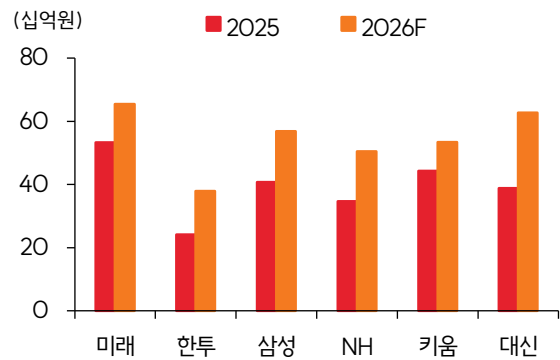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BK & WM 수수료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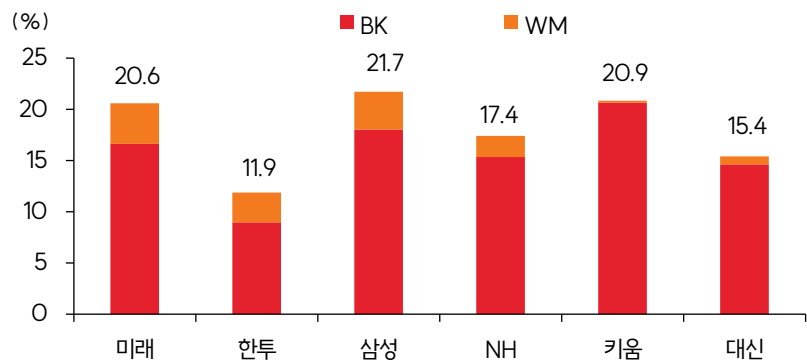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BK & WM 수수료수익 순영업수익 내 비중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2026F BK+WM 수수료수익 ROE 기여도 추정



자료: 각 사,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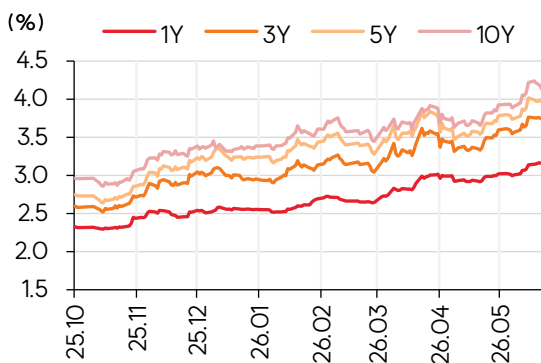
**하반기에도
채권매매평가손익보다
유가증권 매매평가손익 기여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

(3) 운용은 채권부문 부진을 유가증권에서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관건

증권업 특성 상 FVPL 채권이 많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 시 채권매매평가손실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당사 자산전략팀은 올해 1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2 분기에도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채권운용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주식 및 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 매매/평가이익이 얼마나 채권부문의 부진을 상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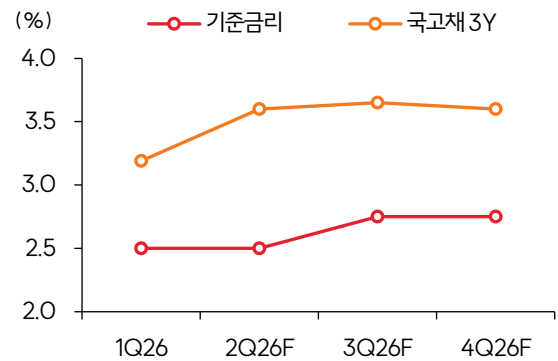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스페이스 X IPO 에 따른 평가이익이 예상되므로 채권운용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운용손익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증권 ELS 부문 성과, 발행어음 비즈니스 뿐 아니라 운용 자회사의 주식운용 성과가 기여하며 전년도 평가이익으로 인한 기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손익이 전년 대비 증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은 주식 PI 및 운용 자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외 채권 포트폴리오가 대부분인 삼성증권과 NH 투자증권을 비교 시, 보다 더 보수적인 채권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NH 투자증권의 방어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Quantiwise, SK 증권

기준금리 및 국고채 3년물 금리 전망



자료: SK 증권

(4) 거래대금 외에 북비즈니스도 중요. 규모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기여

올해 3월 NH 투자증권이 IMA 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IMA 사업자는 총 3 곳이 되었으며, 발행어음 사업자는 7 곳으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행어음/IMA 사업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 하에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방향성과 일치하고, 증권업 입장에서는 조달원을 확대함으로써 레버리지를 높이고 기업금융 중심의 IB 연계 투자를 통해 이익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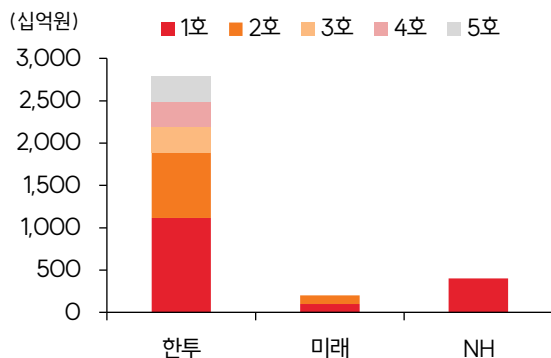
거래대금은 천수답 성격
따라서, 안정적인
이익 기여 측면에서
북비즈니스 기여도도 주목

거래대금이 증권주의 투자심리를 견인하지만, 북 비즈니스도 중요하다. 1)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운용손익 및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 증시 및 거래대금은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거래대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거래대금 레벨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익 기여를 해 줄 수 있는 북비즈니스 기여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행어음의 경우, 2026년 조달 규모와 각 회사별 마진을 고려했을 때, 미래에셋증권은 1,000억원, 한국금융지주 4,400억원, NH 투자증권 1,500억원, 키움증권 250억원의 이익 기여를 할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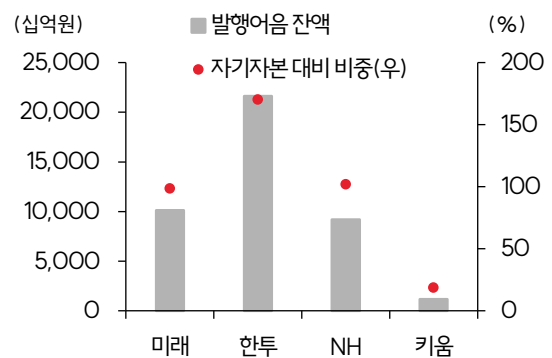
IMA의 경우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IMA 1호 상품의 설정 이후 기간(12/26~3/31) 수익률이 0.35%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으며, 대략적으로 연환산 시 1.4%이다. 한국투자증권의 1호 상품 수익률은 1.04%, 연환산 시 3.92%로 알려졌다.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단계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은 기준수익률 4.0%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니버스 증권 IMA 잔액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발행어음 잔액



자료: 각 사, SK 증권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세는
1분기보다 높기 힘든 상황**

(5) 하반기 투자전략

현재 일평균 거래대금 100 조원대를 기록하면서 우호적인 업황은 지속되고 있으나, 1 분기만큼의 높은 QoQ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다. 1 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66.6 조원으로 QoQ +80.6% 증가한 수준이었다. 1 분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QoQ 증가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2 분기에 최소 120.5 조원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레벨이다.

**회전을 제고가 중요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KRX 거래시간 연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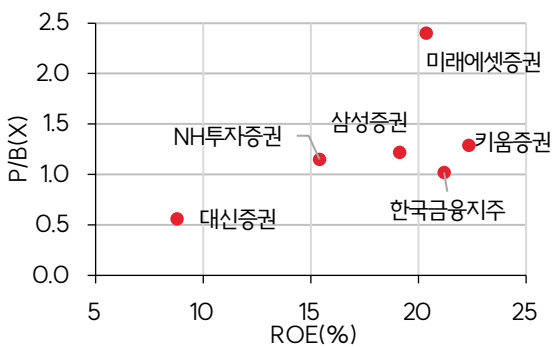
증권업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거래대금에 높게 연동된다는 점에서, 결국 증권주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전을 높여서 높은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록할 수 있느냐이다. 회전을 및 거래대금 확대에 기여할 정책들이 예정되어 있다. 증권업 입장에서는 회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5 월 27 일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하고, KRX 거래시간 연장(프리, 애프터마켓 신설)을 9 월 14 일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회전을 제고 및 거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직접 거래할 뿐 아니라,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인 통합계좌에서 투자 가능한 대상을 국내 ETF 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진입이 용이해지며 브로커리지 수익원이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 강세로부터
최대한의 수혜 예상되는
포트폴리오 보유한 종목 위주
접근 추천**

회전을 제고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 또한 거래대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투자전략으로는 유례없는 주식시장 강세로부터 최대한의 수혜가 기대되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목 위주로 접근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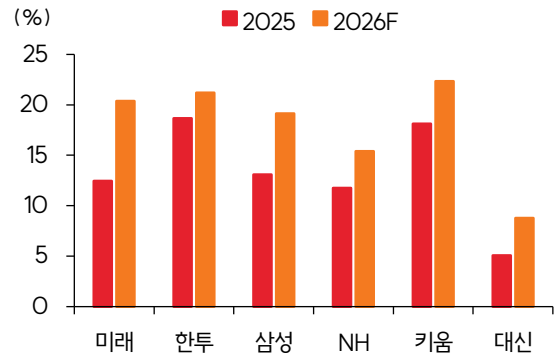
브로커리지 외에 WM 부문 이익 기여도가 높은 **삼성증권**, 운용 부문에서 유가증권 평가이익, 발행어음 등으로 이익 기여 가능한 **한국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브로커리지에 더해 주식 PI 부문에서 유가증권 평가이익 기여 가능한 **키움증권**을 차선호주로 제시한다.

유니버스 증권 2026FROE - P/B Matrix



자료: 각 사, SK 증권

유니버스 증권 ROE 전망



자료: 각 사, SK 증권

2026년 하반기 Top Picks

한국금융지주 (071050/KS) – 美친 이익체력 증명. 증권업계의 All-rounder

- 브로커리지 뿐 아니라 펀드 및 랩어카운트 판매, 발행어음 및 IMA 조달에 있어서 모두 경쟁우위
- 증시 호조로 BK 및 WM 수수료수익 증가 전망. 특히 WM 부문 성장세 가파르고, 2분기에도 성장세 높을 것
- 거래대금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발행어음 및 IMA 북비즈니스 기여가 높아 이익에 대한 우려 적음
- 올해 발행어음 22.2조원 조달, 발행어음 마진 200bp 가정 시, 연간 대략 4,000억원의 이익 기여 예상
- 연결 자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이익 기여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6F 순이익이 2.8조원, ROE 21.2%로 업종 내 높은 수준임에도 P/B는 1.0배에 불과. Top Pick 유지

Company Data	투자지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재주가 254,500 원	순영업수익	십억원	1,989	2,635	4,009	5,335	4,957	5,122
시가총액 14,377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820	1,200	2,345	3,483	2,919	2,956
	순이익(지배)	십억원	707	1,040	2,020	2,826	2,385	2,427
발행주식 수 5,573 만주	EPS	원	12,106	17,805	34,598	48,402	40,840	41,555
주요 주주	BPS	원	143,392	165,262	205,667	251,280	281,484	312,255
김남구(외 1) 21.30 %	PER	배	5.1	4.0	4.7	5.3	6.2	6.1
국민연금공단 13.13 %	PBR	배	0.4	0.4	0.8	1.0	0.9	0.8
외국인 지분율 34.43 %	ROE	%	8.8	11.5	18.7	21.2	15.3	14.0

삼성증권 (016360/KS) – 변동성 속 선명해지는 리테일 경쟁력

- BK 및 WM 부문의 ROE 기여도는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주식시장 강세장에서 유리한 포지션 보유
- IBKR 과 제휴한 통합계좌 서비스를 정식 런칭하였음. 중장기적으로 브로커리지 수익원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
- 올해 DPS 6,700 원 전망하며 배당수익률 5.2%. 별도 자기자본 추이 고려 시, 내년부터 40%대 배당성장 기대
- 2026F 순이익 1.7조원, ROE 19.1% 전망하며, P/B는 1.2배 수준
- BK 및 WM 경쟁력, 배당 등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존재. Top Pick 유지

Company Data	투자지표	단위	2023	2024	2025	2026E	2027E	2028E
현재주가 129,900 원	순영업수익	십억원	1,647	2,240	2,520	3,535	3,411	3,568
시가총액 12,073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741	1,206	1,376	2,241	2,083	2,190
	순이익	십억원	547	899	1,007	1,667	1,553	1,639
발행주식 수 8,930 만주	EPS	원	6,130	10,068	11,279	18,663	17,385	18,357
주요 주주	BPS	원	74,162	82,018	90,348	104,911	115,583	126,741
삼성생명보험(외 3) 29.62 %	PER	배	6.3	4.3	6.7	7.0	7.5	7.1
국민연금공단 13.31 %	PBR	배	0.5	0.5	0.8	1.2	1.1	1.0
외국인 지분율 26.78 %	ROE	%	8.5	12.9	13.1	19.1	15.8	15.2

SIGNATURE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